

“北여성위한 창업교육센터 구상 개성에 여성기업인 전용공단도”

메트로가 만난 기업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여경협, 남북 화해무드 속 할 일 찾아
종합지원센터 평양·개성분소 꿈꾼다
여성기업 창업교육·자료제공 등 지원
전용 인터넷銀 등 후배들에 숙제 남겨



“여건만 된다면 협회 차원에서 북한 여성들에게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만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평양에 가서 보니 북한이 경제발전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이 많고 땅과 노동력도 풍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영노하우와 자본을 접목시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제재가 풀리면 가장 먼저 활성화될 개성공단엔 여성기업인을 위한 전용공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사진)은 난생 처음 평양을 다녀와서 마음이 더욱 바빠졌다. 한 회장은 지난달 18~20일 평양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수행원에 포함됐다. 17명의 경제인 중 여성기업인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 회장뿐이었다.

그가 보고온 평양과 북한은 생각했던 것, 또 들었던 것과 같기도, 그리고 다르기도 했다.

듣던대로 가부장적이었던 북한은 우

리나라의 60~70년대 시절처럼 여성이 애도 키워야하고 살림도 해야하고 남자들처럼 일도 해야했다. 또 오랜기간 교육과 시스템 등이 다르다보니 남과 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이도 크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같은 다툼과 차이 때문에 한 회장 자신과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남과 북의 화해무드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 기업은 남성 기업보다 규모가 작고,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하는 업종이 많다. (대북제재 등이 해제되면) 많은 여성기업이 북에 진출해 북한의 생필품 수준을 개선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이 달랐던 남과 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최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기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된다.”

여경협이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연수,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돋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평양분소,

개성분소를 이젠 조금씩 꿈꿔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한 회장이 2016년 초 협회장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판로개척’이다

“여성기업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판매’다. 우리나라 뛰어난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어 여성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밀리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여성기업이 더 타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성기업이 만든 제품을 여경협 회원사인 여성들이 직접 인증해주는 브랜드 ‘여움’을 만들고, 공영홍쇼핑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기업이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발판을 다진 것도 한 회장 자신이 사업하면서 겪은 아픈 경험을 후배 기업인들이 더 이상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의 교교역할을 하기 위해 협회가 직접 만든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역시 매주 150~160건의 구인·구직정보가 쌓

이고 사람이 모이는 등 구축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회장은 “개인 기업에게 (정부 예산을) N분의 1씩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꾸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가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한 회장은 올해를 끝으로 협회장직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

평양에서 가져온 생각대로 북한 여성들을 위한 창업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먼 구상’으로 둘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기가) 2년은 좀 짧은 것 같고 3년은 좀 긴 느낌이다. 회사를 너무 오래 비워놨다. 미련없이 떠날 것이다.”

물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다.

한 회장은 소회를 묻는 말엔 “여성기업전용인터넷은행이 생기길 바랐다. 사업하다보면 매달 월급날이 돌아오고 어

떤 때는 현금 흐름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이럴땐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다. 여성기업들에게 긴급한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인터넷은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계획했고 간절히 원했지만 이젠 후배기업인들에게 숙제로 남겨줄 수 밖에 없게 됐다.

58년생인 한 회장은 한 때 교수를 꿈꿨다. 당시론 신생학문인 문헌정보학을 선택한 것도 교수가 되기 쉽다는 주변의 권유에서였다. 하지만 일을 벌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를 세상은 대학 강단보단 치열한 사업의 세계로 이끌었다. IMF 직후 남자들도 뛰어들기 쉽지 않은 자동차 부품회사를 직접 차렸다. 어느새 자신은 교수가 아닌 효립산업을 포함해 4곳의 회사와 총 1500명 가량의 임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인이 돼 있었다.

한 회장과 여경협은 오는 5~6일엔 동고동락했던 여성경제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를 부산 해운대 베스코에서 연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튜브’로 영상 보고 ‘페북’으로 노는 10대들

8月 10대 유튜브 사용시간 112억분

10대 ‘63.2%’ 정보검색도 유튜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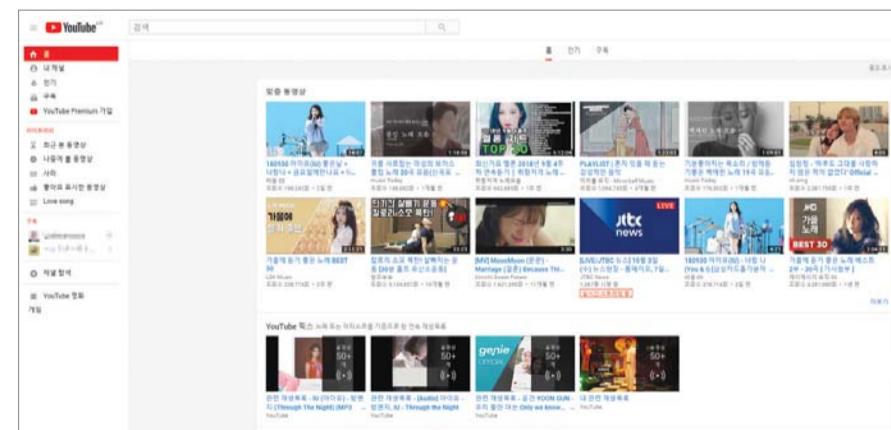
유튜브가 동영상 시청을 넘어 소통과 정보 검색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유튜브는 전 연령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자리를 굳혔다.

3일 와이즈앱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체 연령에서 유튜브 총 사용시간은 333억분으로 나타났다. 2위는 카카오톡(카톡)으로 199억분이다. 네이버가 136억분, 페이스북(페북)이 40억분으로 뒤를 이었다.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한 연령층은 10대다. 10대는 유튜브를 112억분 사용했다. 카톡(25억분), 페북(17억분), 네이버(16억분)을 압도하는 사용량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오픈서베이가 ‘10대의 모바일 이용행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주 이용 매체를 묻는 질문에 유튜브라고 답한 10대가 60.8%로 높게 나타났다. 10대는 유튜브를 시간 때우기 좋고, 흥미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튜브는 동영상 시청의 목적 이외에



유튜브 첫 화면.

도 정보검색, 음악 감상, 채널 구독, 댓글 작성 등을 하는 공간으로도 적극 이용되고 있다.

정보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90.4%)를 이용한다는 10대가 유튜브(63.2%)보단 높게 나타났지만 타 연령층과 비교하면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10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튜브로 검색한다는 비율은 20대 36%, 30대 31.2%, 40대 40%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 이용행태는 카톡, 페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수응답에서 카톡을 이용한다는 10대가 93.6%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페북 메신저 이용률 65.6%, 인스타그램

메신저 이용률 35.2%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페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10대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10대가 카톡 대신 페북과 인스타 등의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SNS와 연동이 되고 편리한 기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톡을 이용하는 비율은 1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페북 메신저 이용 비율은 40대로 갈수록 낮아졌다.

유튜브의 공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SK텔레콤이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인공지능(AI) 기반의 호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유닛장과 박재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누구(NUGU) 기반 호텔 AI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100여개 객실에서 누구 캔들(NUGU Candle)을 통해 투숙객들의 각종 문의 답변, 호텔 편의시설 안내, 주

변 관광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로 레스토랑과 와인바 등 F&B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한다. 고객들은 시설에서 당일의 날씨나 분위기에 맞춘 AI 와인 추천 형태의 색다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아동 관련 시설에 AI를 접목시켜 가족 고객들의 해당 설비 이용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글로벌 숙박업체의 ‘가족 여행에 좋은 세계 10대 호텔’에 선정될 만큼 아동 관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유닛장(오른쪽)과 박재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대표이사가 ‘인공지능 누구(NUGU) 기반 호텔 AI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